

사진은 모르는 단어를 찾을 때 펼쳐보는 단어장이 아니다.
사전에는 인류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때문에 사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고 다양해진다.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사전 속에서 퇴적된 지층처럼 아름다운 무늬를 그린다.
사전의 진화는 내용뿐 아니라 외형에서도 나타난다.
CO를 전자사전이 바로 그 진화의 시발점이다.
앞으로 사전은 볼펜 속으로, 시계 속으로 그 거처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사전의 최종 목적지가 인간의 머리 속이라는 것은 불변이다.
다양화 역시 마찬가지다.
형태는 다르더라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전을 통해 정리된다.
전자사전의 편의성 또한 외면하기 힘든 유혹이다.
하지만 묵직한 종이사전의 매력을 대신할 순 없을 것이다.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를 거듭해 온 사전의 세계를 통해
사전 출판문화의 어제 오늘 내일을 살펴본다.

특집

사전의 진화, 사전의 다양화

1

디지털 시대의 사전도 아직은 그냥 사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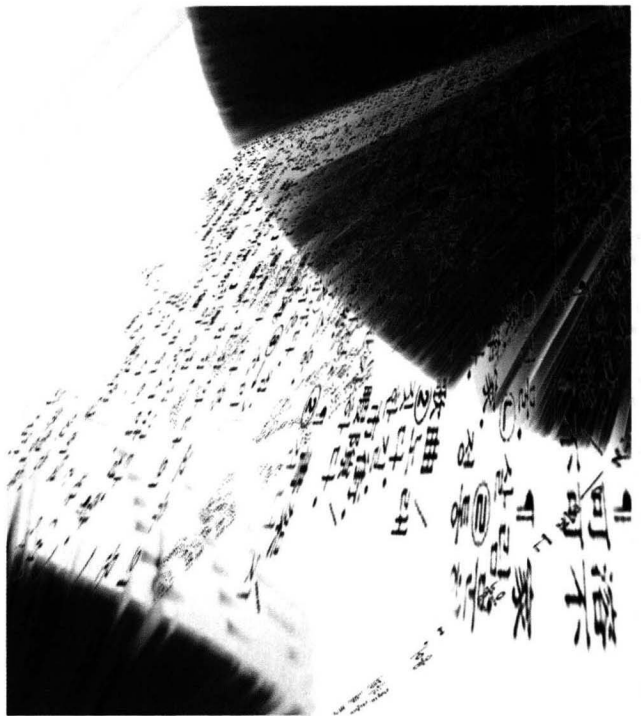
이상섭

세상 만물이 모두 디지털화할 수 있음은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런 사실을 짚싸게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디지털 티브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서적 등이다. 디지털 카메라만 하더라도 대상을 단위면적당 수백만 개의 점(이른바 '화소')들로 나누어 처리하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로 그냥 연결되어 있는 듯이 보이는 대상이 것처럼 전자적으로 셀 수 있는 점들의 집합과 배열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성악가 김 아무개의 아름다운 노래 소리도 것처럼 셀 수 있는 '성소(?)', 즉 '소리 요소'들로 표현될 수 있다. 사람의 눈과 귀는 한 번에 수천만, 수억만의 엄청난 요소를 셀 수 없지만 사람이 전자활동 이용법을 개발한 이래 그런 엄청난 수를 눈도 깜짝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냄새, 감촉, 미각까지도 모두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다. 이처럼 가장 독특한 것,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믿어지던 것들을 모두 디지털화할 수 있다.

사물을 셀 수 있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다룰 수 있게 하는 것을 요셋말로 '정보화' 한다고 한다. '지식은 정보다' 라는 요즘 애용되는 구호는 "모든 지식은 정보화될 수 있고 아직 정보화되지 않은 지식은 오늘날의 전자시대에 유용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무슨 지식이든 정보화시키려고 기를 쓰는 판이다.

보통 책을 디지털화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큰 책 20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장의 CD에 담겨 제공되고 있다. 실은 우표보다도 작은 딱지에 담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다루기 불편하대서 그런 크기가 된 것이다. 우선 종이 아끼고, 서재 공간 아끼고, 체력 아낀다. 도서관이라는 엄청난 공간이 미래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외국에서는 극히 초보적인 정보도구인 얇은 수첩 모양의 '영어전자사전' 이 벌써 오래 전에 무거운 책 사전을 거의 대체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만큼 학생의 책가방이 가벼워졌다는 말이다.

나는 기이한 인연으로 국어사전 편찬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거의 20년이나 그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첫발부터 국어사전 편찬이 국어의 정보화라는 엄청난 사실을 알고 한없이 두려웠다. 당시에 극소수 전산과학자들만이 그런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 국어학자, 언어학자는 모두 그 사실에 감감했다. 내가 국어사전 편찬계획에서 처음으로 큰 금액의 연



구비를 받은 것은 당연히 한 전산과학 연구 프로젝트에서였다. 또한 세계적 컴퓨터 회사로부터 당시로서는 굉장한 컴퓨터 5대를 기증받았는데 내가 봉직하던 대학의 전산과학과에도 그런 기계가 없어 그 중 두 대를 넘겨 줄 수도 있었다. 1980년대의 일이니 기술발달사에서는 아득한 옛이야기다.

사전은 언어에 대한 사람의 지식을 정보화하여 담은 책이다. 5천여 년 전에 수메르 사람들이 수메르 말의 아무 말은 아카디아 말로 무슨 뜻이라는 어휘 설명을 새겨 담았던 진흙판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만큼 말의 뜻이야말로 사람의 지식 중에서 가장 먼저 정보화, 즉 디지털화될 사물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전은 정보화의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방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이 CD 한 장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은 종이사전을 단순히 CD에 담았다는 극히 초보적 의미밖에 없다. 단순히 책의 글자들을 디지털화한 것만으로 국어를 정보화했다고 할 수 없다. 모든 사물의 정보화를 달성하려는 전산과학자들에게 그런 사전은 별 쓸모가 없다. 아직도 국어사전은 나처럼 정년퇴임한 사람이 국어자료들을 주물러서 이 낱말 저 낱말을 저 나름으로는 되도록 정확하게 풀이하여 차곡차곡 모아 놓

은 것이다.

전산과학자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정작 만들지는 못하는 사전은 어떤 것일까? 궁극적으로는 컴퓨터, 즉 인공지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전이겠다. 그런 사전은 낱말의 뜻만 아니고 낱말의 쓰임, 곧 문법까지도 철저히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일 터이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에 기본 세팅만 되어 있으면 한국어 문장을 영어 문장으로 정확히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말은 너무도 미묘해서 도저히 디지털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다. 하물며 소박한 일반인들이 이력저력 배워서 알아들을 수 있는 보통 말을 디지털화하지 못할 것인가! 그런데도 말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서 온 정보과학계가 고민하고 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우리 말로 전달되는 모든 말의 의미를 보통사람이 금방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사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서양의 한 학자는 새 낱말을 발견하자마자 그 뜻을 대번에 풀이해 주는 기계를 설계중이라고 하는데(다시 말하면 그런 기계는 그 나라 말의 의미 요소들을 모두 디지털화해서 내장하고 있다는 것이라) 우리는 우리끼리 의미정보를 쉽게 공유하도록 돕는 사전 만들기에서도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다(그래서인지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엉뚱한 말이 엉뚱한 사람에 의하여 엉뚱하게 쓰이다가 없어지곤 하여 의미 불통이 심하다).

디지털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물이 인공지능 속에 수치적으로 저장될 수 있다. 만질 수 있는 사물이 공간과 시간의 차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아쉽기도 한 일이다. 휴대폰 속에 큰 도서관 책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저장된다 해서 도서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 세상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CD 한 장짜리 《옥스퍼드》 영어사전과 함께 20권의 우람한 책들도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사전은 물론 언어정보 도구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책상 머리 내 손이 쉽게 닿을 곳에 꼭 있을 물건도 되어야 한다. 손가락 한번 놀리면 대번에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계도 필요하지만 간혹 짜증스럽게 이리저리 책장을 뒤적여야 하는 사전도 여전히 정다운 쓸모가 있다. 심지어 목침 대신 베고 낮잠 잘 때 쓸 수

도 있다. 다만 그 내용은 보통 사람이 보아도 “거 참 뜻풀이 잘해주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야 하겠다. 한 사회에서 소통되는 언어 정보의 공유에서 진짜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

이 글을 쓴 이상섭은 연세대 명예교수로 한국 영어영문학회 회장, 아시아사전학회 회장, 한국사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연세국어사전》 편찬 고문, 《연세한국어사전》 《연세초등국어사전》을 책임 편찬했다.